



한덕수 총리, 충남 청양 호우 피해현장 방문

- 지천 제방 피해현장 등 방문, 응급복구 상황 점검 및 군 장병경찰 기동대원 격려 -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(수) 오전 10시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복구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과 경찰 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.
 - * (참석)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김기영 충남도부지사, 김돈곤 청양군수 등
- 한 총리는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및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“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조사와 복구,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”을 당부했다.
 - 또한, 오늘 청양군을 포함하여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복구비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.
- 이어서, 한 총리는 농작물 재배 하우스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경찰 기동 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”고 격려를 전했다.
 - 또한, “청양군의 대피명령을 주민들께서 잘 따르셔서 인명 피해가 적었다”며 청양군 재난대응 관계자와 주민들께도 감사를 전했다.
- 한편,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께서도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00-2341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미석 (044-200-2352)